

유현목 감독 '임꺽정' 60년 만에 발견

미국 의회도서관서 극적 복원



▲ 60여년 만에 복원된 유현목 감독의 '임꺽정' 한 장면. 사진=한국영상자료원



1961년 개봉한 유현목 감독(사진)의 영화 '임꺽정'이 60년 넘는 세월을 건너 관객들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임꺽정'은 홍명희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신영균, 박노식, 엄앵란, 허장강, 최무룡, 문정숙 등 당대 최고의 배우들이 출연해 1962년 당시 장기 상영 2위에 오르며 10만 관객을 동원했다.

하지만 이후 필름이 유실되며 오랫동안 실물을 확인할 수 없었던 이 영화가 최근 미국에서 극적으로 발견돼 복원됐다.

6월 26일(한국시간) 서울 마포구 시네마테크 KOFA에서 열린 시사회에서 이 영화를 처음 발굴한 한국영상자료원 이지영 해외 수집 담당은 당시의 놀라움을 생생히 회상했다.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제너럴 림꺽정'이라는 제목의 필름이 있다는 말을 듣고 갔지만, 북한 영화일지도 모른다 생각하며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필름 크레딧에 '유현목'이라는 이름을 본 순간 정말 놀라고 기뻐졌."

패커드 센터는 약 1,000만 건의 자료를 보유한 세계 최대 보존 전문 기관으로, 필름은 극도로 엄격한 조건에서 보관된다. 한국영상자료원 이지영 해외 수집 담당은 "1960년대 한국 영화 필름의 보존율이 47%에 불과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임꺽정' 필름을 찾은 건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 첫 상업용 원자력발전소 해체

고리1호기 2037년까지...글로벌 해체시장 진출 계획

한국 최초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가 40년 운영을 마무리하고 해체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6월 26일(한국시간)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고리1호기 해체 계획서를 심의·의결하고, 최종 승인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고리1호기는 2017년 영구 정지 이후 8년 만에 본격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1호기는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공급한 가압경수로(PWR) 방식의 원전으로, 설계용량은 595메가와트(MW)다.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뒤 2007년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으며, 2017년 6월 가동을 중단했다.

한수원은 이번 해체 사업을 계기로 원전 건설과 운영을 넘어 해체까지 전 주기 기술을 확보하고, 약 50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방사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수원은 자사가 개발한 4족 보행 자율주행 로봇을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이 로봇은 지난월부터 계통 제어 작업에 활용되고 있으며, 방사선 노출을 줄이고 작업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 2037년 해체 완료 목표

한수원은 고리1호기 해체를 2037년까지 완료한다

는 목표 아래 총 12년에 걸쳐 작업을 추진한다. 우선 2031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전량 반출하고, 이후 부지 복원에 착수해 2037년까지 완전 해체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해체 절차는 해체 준비, 주요 설비 제거, 방사성폐기물 처리 및 부지 복원의 단계로 이뤄진다. 다음 달부터는 터빈 건물 내 복수탈염 설비, 옥외탱크 등 비관리 구역 설비에 대한 해체 작업에 착수한다. 석면 보온재 제거 후 철거에 들어가며, 이 과정은 약 30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어 방사성 설비와 구조물 철거, 폐기물 처리 등을 거쳐 2037년 해체가 완료되면 부지는 방사선 기준에 맞춰 복원된다. 한수원은 "방사선 안전, 환경 보호, 지역 소통을 핵심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 국내 원전 해체 생태계 전환점

업계는 고리1호기 해체가 단순한 설비 철거를 넘어, 국내 원전 산업의 생태계가 '건설-운영' 중심에서 '전 주기 관리'로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첫 해체 사례를 통해 축적된 경험은 향후 해외 시장 진출에도 중요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영구 정지된 원전은 209기이며, 이 중 해체 완료는 21기에 불과하다. 2050년까지 약 588기가 영구 정지될 것으로 예상돼 해체 기술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 63% "작년보다 더 어려워"

한국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작년에 비해 올해 경영 상황이 나빠졌다고 느끼고 있으며,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3.4% "작년보다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비슷하다"는 응답은 29.8%, "개선됐다"는 응답은 6.8%에 불과했다.

현행 최저임금이 부담된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었다. "매우 부담된다"는 의견은 50.0%, "보통 수준"은 30.6%, "부담 없다"는 응답은 19.4%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64.2%), 도소매업(51.9%), 교육

서비스업(50.0%), 제조업(48.4%)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까지 고려하게 되는 수준으로는 "현재도 이미 한계 상황"이라는 응답이 28.8%로 가장 많았고, "15% 이상 인상 시" (14.2%) "9~12% 인상 시" (12.8%) 순이었다.

자영업자들의 월 평균 소득도 열악한 상황이다. 전체 응답자 중 30.4%는 월 소득이 현행 최저임금 기준 월 209만6270원에도 못 미친다고 답했다. 그 외 250만3000원 미만 (20.4%), 최저임금 이상 250만원 미만 (18.8%), 350만~400만원 미만 (11.6%) 등의 분포를 보였다.



발냄새로 미래를 본다

장원호 발 전문 병원

(발 및 발목 치료 족부 전문 병원)

Ryan Chang, DPM

분야

- 발 통증, 통풍, 평발, 발목 골절
- 스포츠 관련 발 & 발목 부상, 인대 손상
- 관절염, 발가락 변형, 족저근막염
- 무좀, 내성발톱, 사마귀
- 발 교정용 & 맞춤형 깔창 처방
- 발목 또는 발가락 기형 수술
- 당뇨관련 발치료, 무지외반증
- 소아족부질환, 소아 안짱다리 교정

— 발 관련 스포츠 부상 관리 및 수술 전문 —




레이저
Class IV Laser

최첨단
체외충격파

▶ 특별 진료 ▶

최첨단(체외충격파, 레이저)기기로 통증, 사마귀, 발톱무좀 치료

— 각종 보험 취급 —

PPO: United Health Care, Anthem, Cigna, Aetna, Blue Cross Blue Shield
HMO: Seoul Medical Group, Center IPA, Prospect (Daehan) Medical Group

T.949.484.4405

62 Corporate Park Suite #235, Irvine, CA 92606

월요일 - 금요일 9:00am - 5:00pm